



강북구의회
Gyeo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8년 5월 7일
(월요일)

강북신문 5면

◆강북구의회 신상발언- 유인에 의원

“강북구청 모 과장 국민청원 진실 밝혀라”

유인에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북구청 모 과장의 국민청원과 관련된 발언을 펼쳤다.

유 의원은 “지난 1차 임시 회의시, 동료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중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한 강북구청 모 과장의 구청장 갑질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구청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.”고 밝히며 “그런데 바로, 발언 이후 모 과장은 감사과에 불려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, 사실이라면 감사 이유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하고 사실무근이라면 모과장이 거짓을 말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유 의원은 “그러나 본 의원이 이상한 점은,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진



유인에 의원

실이 보였기 때문”이라며 “그런데 현재 모 과장은 청와대에 본인의 억울함을 올리고 난 후, 감사과에 다녀오고 나서는 함구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모든 상황이 매우 궁금

하다”고 말했다. 이어 유 의원은 “또한 의원들의 이런 저런 발언들이 그 당사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”이라며 “정의사회 구현, 그리고 정의로운 강북구를 만들어 감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라도 왜곡된 진실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동북일보 4면

신상발언

국민청원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?

유인에 의원

(자유한국당/번1·2동, 수유2·3동)

유인에 의원은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“모항공사 모녀의 갑질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분노로 떠들썩하다” 며 신상발언을 시작했다.

유 의원은 지난 1차 임시회의 시, 동료의원의 5분 발언 내용 중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한 강북구청 모 과장의 구청장 갑질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구청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는데, 발언 이후 모 과장은 감사과에 불려갔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물으며, 사실



▲ 유인에 의원.

이라면 감사이유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드

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.

만약 사실무근이라면 모과장이 거짓을 말한 것이겠지만 본 의원이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진실이 보였다고 주장했다. 그런데 현재 모 과장은 청와대에 본인의 억울함을 올리고 난 후, 감사과에 다녀오고 나서는 함구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상황이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. 또한 의원들의 이런 저런 발언들이 그 당사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, 정의사회 구현, 그리고 정의로운 강북구를 만들어 감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라도 왜곡된 진실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.

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, 신상발언

‘강북구청 모 과장의 국민청원’ 관련

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‘강북구청 모 과장의 국민청원’과 관련해 신상발언에 나섰다.

먼저 유인애 의원은 “지난 1차 임시 회의시, 동료의원의 5분발언 내용 중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한 강북구청 모 과장의 구청장 갑질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구청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”며 “그런데 바로, 발언 이후 모 과장은 감사과에 불려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, 사실이라면 감사 이유와 내용을 주민들께 알려드려야 하고 사실무근이라면 모과장이 거짓을 말한 것이다”고 밝혔다.

이어 유 의원은 “그러나 본 의원이 이상한 점은,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진실이 보였기 때문이다”며 “그런데 현재 모 과장은 청와대에 본인의 억울함을 울리고 난 후, 감사과에 다녀오고 나서는 함구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모든 상황이 매우 궁금하다”고 말했다.

또한 “의원들의 이런저런 발언들이 그 당사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”며 “정의사회 구현, 그리고 정의로운 강북구를 만들어감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라도 왜곡된 진실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”고 강조했다.